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OWER OF THE DOG

가제 : 개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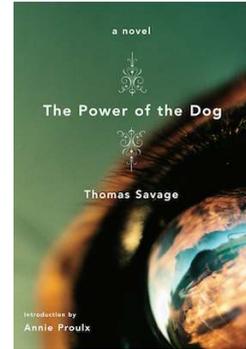
저자 : Thomas Savage

출판사: Vintage UK

발행일: 2016년 2월 4일(개정판)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너무나 큰 기쁨을 선사한다. 그야말로 대작이다. ‘래리 왓슨 (‘Montana 1948’, ‘Justice’의 저자)

형제 그 이상의 관계, 사업과 인생의 둘도 없는 파트너로 살아온 두 남자 앞에 찾아온 큰 변화

1967년에 초판이 발표된 후 ‘미국 서부의 삶을 가장 섬세하게 그린 책’으로 호평을 받았던 소설이 2001년에 이어 올해 다시 새롭게 출간됐다. 1920년대,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몬타나를 배경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는 두 형제가 갑작스레 찾아온 변화에 어떻게 맞서고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다.

40세인 필과 두 살 아래 동생인 조지 형제는 몬타나 주에서 가장 큰 소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노쇠한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간 후, 두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방에서 여전히 나란히 침대를 놓고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가업을 잇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형제지만, 필과 조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필은 키가 훗칠하고 깡마른 몸매에 늘 자신감이 넘치고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척박한 땅에서 성공을 일구어낸 강인한 사람들을 인생의 영웅으로 여기면서, 힘든 일도 맨손으로 해치우고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농장 작업복 외에 다른 옷은 잘 입지 않았다. 목욕도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연못에 가서 대충 씻고 올 정도로 투박하게 살아가지만, 필은 누구와 체스를 두더라도 항상 이겼고, 책도 손에 잡히는 대로 몇 십 권씩 읽었으며 말솜씨도 좋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동생 조지는 외모부터 필과 달랐다. 다부진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조지는 말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뭐든지 느리게 터득하는 아이였다. 대신 주어진 일은 묵묵하게 끝까지 해내는 독심과 친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착한 성품 덕에 누구에게나 신뢰를 얻었다. 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대장 노릇을 하려고 드는 반면, 조지는 일이 원만하게 이어지도록 헌신하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듯 다른 두 사람은 특별한 문제 없이 농장 일을 해왔지만, 평화로운 생활은 조지의 갑작스러운 결단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성장한 아들이 있는 미망인 로즈와 결혼하고 그녀를 농장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25년간 더 없이 좋은 사업

파트너로서, 또한 인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일구어온 삶에 작별을 고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거친 서부 평원, 끝없이 부딪히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 가는 네 사람의 이야기

로즈는 동부에서 살다가 의사인 남편을 따라 낫선 몬타나까지 왔지만, 남편이 고등학생인 아들 피터와 자신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냉혹한 현실 속에서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낫선 곳에서 지내서일까, 점점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변해가는 아들 피터와, 어려운 생계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로즈의 앞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조지가 나타났다. 필은 농장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로즈를 돈 뜰어낼 궁리나 하는 여자로 일찌감치 단정 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둘은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다. 한 번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온 나이든 인디언 추장이, 필과 조지 형제의 농장과 가까운 땅을 부족의 신성한 땅이라 주장하며 머물려고 고집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필은 총을 매고 득달같이 달려가 인디언 추장에게 총을 겨누며 당장 땅에서 나가라고 협박했지만, 로즈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그 땅에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었다. 이렇듯, 다툼이 끊이지 않는 험악하고 위태로운 나날 속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로즈의 아들인 피터까지 농장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네 사람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어진다. 피터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으며,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운동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친구도 몇 명 없었다. 사람들을 피하고, 죽은 아빠가 남긴 의학 서적을 혼자서 읽으며 자연 현상을 공부하거나 종이를 잘라서 꽃을 만드는 등 혼자서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일에 전념했다. ‘계집애 같은 놈’이라는 비아냥이 피터를 따라다녔고, 그렇지 않아도 로즈와 피터가 못마땅했던 필은 피터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가지라도 할 때마다 주저 없이 트집을 잡았다. 네 사람에게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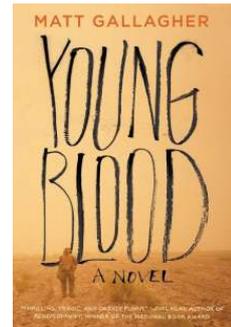
불안하고 서글픈 마음에 로즈는 힘들게 극복했던 알코올 중독 증상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대로 깊은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뜻밖의 돌파구를 찾아낸 것은 피터였다. 어떤 도구든 능숙하게 다루고 철공, 목공, 박제술 등 손재주가 뛰어난 필에게 가족으로 끈을 엮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필이 피터의 부탁을 마지못해 수락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답이 보이지 않던 갈등에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명의 결혼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형제의 관계, 섬세한 인물 묘사,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적으로 그려지면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토머스 새비지(Thomas Savage)는 몬타나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카우보이, 농장 일꾼, 철도 인부로 일하다가 첫 번째 소설 『The Pass』을 발표했다. 이후 서포크 대학교와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전업 작가로 전향했다. 1944년부터 1988년까지 주로 미국 서부 지역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을 총 13권 발표했다.

제목 : YOUNGBLOOD
가제 : 피 끓는 청춘
저자 : Matt Gallagher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6년 2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전쟁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니다. 기억과 영원, 희망과 죄의식에 관한 소설이다. — 팀 오브라이언 ('The Things They Carried'의 저자)

불안과 무료함이 공존하는 이라크 전쟁터에서 벌어진 음모와 사랑, 살아남기 위한 각자의 방식

스물 넷,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라크의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지내는 잭 포터는 40명의 소대원을 이끄는 젊은 중령이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선한 일을 하고, 소대원 모두 무사히 귀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이라크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잭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대한 진중하게, 성공적으로 해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잭이 머물고 있는 이라크의 상황은 모순 그 자체다. 잭의 소대와 다른 미군들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라크 지도자들이 이끄는 세력이나 지역 단위로 뭉친 반군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언제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고, 여기가 전쟁터가 맞는지 장간 잊어버릴 정도로 평온하고 지루한 정찰 활동과 미군을 노린 사제폭탄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묘한 곳이 바로 이라크였다. 미국이 이라크 주둔군 전체를 철수시킬 준비를 해나가는 시점에, 잭은 이 복잡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나?'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로 그저 맡은 임무를 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몇 년 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는 베테랑 병장 대니얼 챔버스가 나타나면서 잭이 애써 유지해온 불안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대니얼은 모든 면에서 잭과 부딪혔다. 공격적이고 우악스러운 지휘 방식, 병사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전 규칙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꾸어버리고 이라크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일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대니얼은 강한 카리스마로 잭의 리더십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다. 잭과 대니얼의 갈등은 점차 뜨거워지고, 대체로 평온했던 이라크의 상황도 잦은 교전과 충돌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젊은 중령과 비밀을 감춘 베테랑 병장의 첨예한 대립, 일촉즉발의 전쟁터가 던지는 도덕의 의미

대니얼과 잭 모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판이했다. 대니얼은 경력과 나이를 앞세우며 잭을 포함한 젊은 소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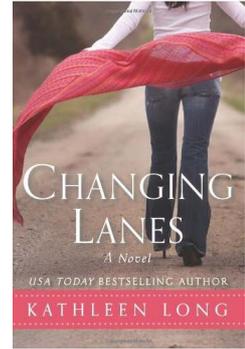
을 ‘피 끓는 청춘’이라는, 알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담긴 호칭으로 불러대며 자신의 방식대로 전쟁을 이끌어가고 했다.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잭은 몇 차례 대니얼과 크게 부딪힌 후 어느 날, 지역 주민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니얼이 4년 전 이라크에 머물던 당시 민간인 사살 작전에 관여했으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슬람 지도자의 아들을 없애는 일도 도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 내에서 의문점만 남겼던, 리오스 병장의 죽음에 얽힌 사건에서도 대니얼의 이름이 언급됐다. 야간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었으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리오스 병장이 사실 대니얼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이다.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 사건을 파헤치던 잭은 리오스 병장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 전에 이슬람 지도자의 아름다운 딸 라나와 사랑에 빠졌으며 군 복무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었다는 놀라운 정보를 접했다. 라나와 결혼하여 이라크에 남기로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니얼이 떳떳하지 않은 일에 가담했으리라 확신한 잭은 눈엣가시 같은 그를 내몰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한다. 잭은 집착에 가까운 노력으로 라나의 소재지를 알아냈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불행한 삶을 간신히 이어오느라 영망진창이 된 라나를 보는 순간, 잭의 마음 속에는 그녀를 도와야겠다는 강렬한 결심이 들어선다. 그로 인해 잭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이 뒤흔들리고 범죄의 경계까지 내몰리고 만다.

순박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이라크 사람들의 불행한 생활, 감추어진 옛 사건을 파고들면서 더욱 깊어만 가는 대니얼과의 갈등, 뜻밖에 맺은 라나와의 인연으로 그 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를 다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적군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함부로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전쟁터에서 젊은 세대인 잭과 구세대인 대니얼이 느끼는 윤리, 도덕의 의미, 가치가 곳곳에서 침예하게 대립한다.

<저자 소개>

맷 갤러허(Matt Gallagher)는 미국 육군대위 출신으로 이라크 전 당시의 일들을 블로그로 사람들과 공유하다가 큰 관심을 얻어 회고록 『Kaboom』을 발표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글쓰기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뉴욕타임스>, <보스턴 리뷰>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CHANGING LANES
가제 : 노선 변경
저자 : Kathleen Long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3년 5월 14일
분량 : 264 페이지
장르 : 여성



완벽하게 풀리던 삶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

항상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삶이 늘 피곤하게만 느껴지던 에비는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날, 신기할 만큼 웬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 같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만들어온 지난 삶이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에비가 나고 자란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 신혼집도 마련했으며, 칼럼리스트로서의 커리어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확신한 바로 그 때, 에비가 그려온 완벽한 미래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빅토리아풍 양식으로 지어진 새 집에 어마어마한 수의 식구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에비와 약혼자 프레드가 살 집을 먼저 점거한 주인공들은 바로 흰개미 떼. 해충 박멸 전문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이대로 두면 건물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얼른 수리하고 개미 떼를 싹 없애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사를 할 생각으로 살던 집을 이미 정리해버린 에비는 어쩔 수 없이 신혼집과 멀지 않은 부모님의 집에서 잠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둔 시점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소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에비는 애써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날, 프레드가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프레드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 답이 없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야 전화를 걸어온 프레드는, 에비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결혼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니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모든 일이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진다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은 에비에게, 프레드는 몸도 마음도 모든 에너지를 잃었으니 시간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에비에게는 프레드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중대한 사건이 하나 더 남아있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만 알았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프레드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해고 사실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에비는 뒤통수를 연달아 얻어 맞은 듯한 충격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삶이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준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신기루가 되어버렸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 에비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포용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볼 때 비로소 찾아오는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고 부모님 집에 들어온 그 날부터 에비의 생활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자식의 일이라면 사사건건 참견하는 일이 삶의 낙인 엄마는 해외로 도망간 프레드 대신 선이나 보라고 에비를 괴롭혔고,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여동생과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다섯 살배기 꼬마 여동생, 그리고 온 동네에 괴짜로 소문난 할머니까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마음을 진정시킬 틈이 없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에비에게 어차피 직장도 없어진 김에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이미 계약이 끝난 신혼 집 대출금도 벌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라며 제안하고, 집에 있어도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었던 에비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프레드에게도 틈틈이 연락을 해봤지만 그는 에비의 절박하고 간곡한 문자 메시지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몸도 마음도 괴롭기만 한 생활이 이어지던 와중에, 에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던 믹이 여전히 부모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때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밀 하나 없는 사이로 지내던 믹과 에비는 자라면서 키스도 나눌 만큼 애뜻한 사이로 발전했었지만, 13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믹이 아무런 예고도, 인사도 없이 홀연히 마을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다시 조금씩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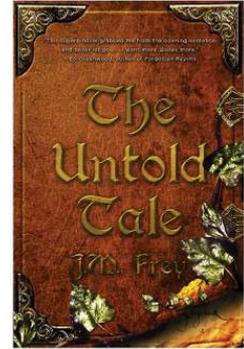
믹 말고도 따끔한 충고와 위로를 아낌없이 안겨주는 데스티니, 제시카 두 친구를 만난 에비는 처음 부모님 집에 마지못해 들어온 날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지금의 삶은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던 이상적인 생활과는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늘 바라고 원하던 삶과 가장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친구, 마을 사람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에비는 낡은 미놀타 사진기를 들고 소소하지만 가장 값진 순간들을 포착하기도 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도 부르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포근한지 다시 배워 간다.

무겁지 않지만 너무 가볍지도 않게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기분 좋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슬린 롱(Kathleen Long)은 로맨스 소설, 여성 소설 등 10여 권 이상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작품 중 다수가 <USA 투데이>, <월 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제목 : THE UNTOLD TALE
가제 : 숨겨진 이야기
저자 : J.M. Frey
출판사: REUTS Publications
발행일: 2015년 12월 8일
분량 : 572 페이지
장르 : 판타지



고리타분한 영웅 이야기에 영증을 느낀 독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기상천외한 판타지 시리즈

누구나 '영웅'이라고 일컫는 주인공들이 있다. 힘도 세고, 용맹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거머쥐며 거대한 왕국을 다스릴만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들. '킨타이어 턴'이라는 판타지 소설 속 나라에서는 국왕의 장남인 킨타이어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영웅이다. 킨타이어의 남동생인 포시스는 여러 면에서 형과 정반대다. 몸도 마음도 허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말도 더듬거리고, 몸매도 통통하니 형편없는 편이라 한 나라의 왕자인데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왕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어릴 때부터 즐겨 읽다 못해 살살이 분석해온 열혈 독자가 한 명 있다. 루시 파이프라는 이름의 이 독자는 누구나 예상하는 이 판타지 소설의 결말을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 진짜 영웅은 킨타이어가 아닌 포시스 왕자이며, 몰락해가는 왕국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포시스 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급기야 기상천외한 경로를 통해 소설 속 세상으로 직접 들어간 루시는 포시스의 곁에서 조언을 하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기존의 판타지 소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닌 그 소설을 읽는 또 다른 가상의 독자가 바라보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독특한 구성의 3부작 시리즈가 시작된다.

루시 파이프가 십대 소녀일 때부터 가장 사랑하는 책 <킨타이어 턴의 이야기>에서 차남 포시스 턴은 이기적이고 못된 형 킨타이어가 떠넘긴 일들을 처리하느라 골치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법의 검 '포스미터'를 찾아낸 형은 온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얻고도 책임질 일은 다 동생인 포시스에게 넘겨버렸다. 고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공개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가 성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포시스는 서둘러 병력을 투입해 범죄자 색출에 나선다. 그런데 수색을 벌이던 중,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 왕궁으로 끌려온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외모도 낯선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루시 파이프라고 하면서, 킨타이어와 포시스 왕자는 물론이고 이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다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는 묘한 말을 한다.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이 여자의 정체를 두고, 왕궁은 큰 혼란에 빠진다.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영웅, 뻘한 판타지 소설의 요소와 전개를 완전히 뒤집는 참신한 설정

판타지 소설마다 늘 영웅은 남자인데다 영웅이랍시고 가진 능력이라곤 다 똑같다는 사실에 신물이 난 루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는다. 형의 그늘에 싸여 어릴 때부터 늘 밀려나기만 했던 포시스 왕자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진정한 영웅이라 생각한 루시는, 상투적인 판타지 소설의 요소들만 가득한 원작을 직접 바꿔 쓰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결말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한 루시는 마침내 소설 속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을 알아내고,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마침내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이야기를 쓴 작가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포시스 턴 왕국은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고, 낯설었다. 하지만 당황하던 시간도 잠시, 곧 목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은 루시는 왕궁에 성큼 들어서서 포시스 왕자를 만나고, 늘 기동 뒤에 숨어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포시스에게 자신이 떠나온 세상으로 가려면 마법의 출입구를 찾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로 곤란해하는 그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다. 그리하여 시작된 두 사람의 모험. 포시스가 한 번도 도전해본 적 없는 일들을 척척 해내는 모습에 루시도 놀라지만 포시스 자신도 깜짝 놀랐다. 심지어 형조차 완전하게 무찌르지 못한 괴물까지 목숨을 끊어놓는 기막힌 능력까지 발휘하며, 포시스는 스스로 만든 내면의 두려움과 직면한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형과 주변 환경이 자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못나고 어딘가 부족한 아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기 시작한다. 루시가 바라는 진짜 영웅이 되어가는 포시스. 루시와 포시스는 마침내 루시가 떠나 온 세상으로 돌아갈 마법의 출입구를 찾아내지만, 왕국을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두 사람을 몰래 뒤따라온 악당이 루시를 따라 그 입구에 발을 들이고 만다. 키타이 어 턴 왕국의 운명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여파는 루시가 사는 세상까지 뒤흔들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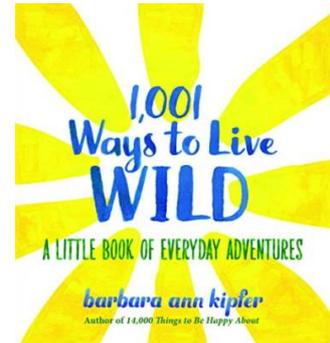
루시 파이프라는 가상의 독자를 따라 그녀와 함께 책을 읽고 소설 속 인물들을 만나는 독특한 구성의 판타지 시리즈로, 2권 <잊혀진 이야기(The Forgotten Tale)>는 2016년 6월에, 3권 <금지된 이야기(The Silenced Tale)>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에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J.M. 프레이(J.M. Frey)는 배우, 성우이자 SF 소설 작가로 활동해 왔다. 데뷔 소설인 『Triptych』는 'Lambda Literary Awards'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며 '샌프란시스코 도서 축제'에서 SF 소설 부문 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거나 후보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1,001 WAYS TO LIVE WILD
가제 : 인생을 거칠게 사는 1,001가지 방법
저자 : Barbara Ann Kipfer
출판사: National Geographic
발행일: 2016년 4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처세



평범한 일상을 짜릿한 모험과 여행처럼 만드는 법, 자연에 감사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거칠게’ ‘자연 그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세렌게티 초원에서 갈기를 바람에 휘날리며 우아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사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과감히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다. 그 사자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스카이다이버의 흥미진진함과 자유로움을 평범한 일상생활에 가져온다면 어떨까? 저자는 평범한 일상을 모험처럼 만들 수 있는 1,001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살면서 꼭 해보야 할 즐길 거리, 생각을 자극하는 인용구들과 함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재미 있는 정보들이 화려한 색감의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제시된다. 저자가 푹 던지듯 내민 짧은 문장과 간단한 목록에는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신나게, 용기 내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압축되어 있다.

‘점심시간을 거칠게 보내는 방법’ 목록에는 발레나 댄스 수업 들으러 가기, 정원이 꾸며진 곳 가서 식물 속에 들어가 호흡하기, 사우나나 가기, 가까운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 가기, 롤러스케이트나 아이스케이팅 타기, 다트 던지기를 하거나 수영장 가기, 외국어 배우기, 공원에 앉아서 주사위놀이를 하거나 체스 두기, 3 킬로미터 정도 걷기,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과 함께 점심 먹기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된다. ‘모험가처럼 걷는 법’에서는 알파벳 모양으로 걷기, 걸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보기와 같은 재미 있는 방법이 소개된다. 계절별로 ‘거칠게 사는 법’도 소개된다. 가을에 거칠게 사는 방법으로는 떨어진 잎을 모아 잘 말려서 그림처럼 만들어보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고 나무 사이를 지나가보기, 수북이 쌓인 낙엽 더미에 몸을 던져보기, 가까운 농장에 가서 직접 호박 따보기, 허수아비 만들기,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뜨거운 코코아 마시기, 즐겨 찾는 공원에 가서 연날리기, 겨울이 오기 전에 해볼 만한 등산 계획 세우기 등 소소한 일부터 기억에 오래 남을 좋은 추억이 될 활동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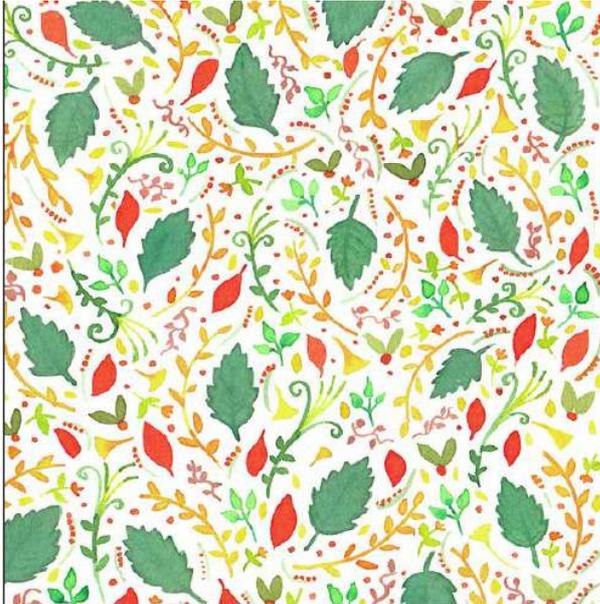
저자는 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면서 남편과 둘이 덩그러니 남게 되자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전환점을 떠올리며 이 아이디어들을 떠올렸다고 설명한다. 졸업, 취직, 중요한 생일, 시작되는 관계와 끝이 나는 관계, 결혼, 부모의 역할, 은퇴 등 줄줄이 지나가는 삶의 전환점들은

과연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평소에 여행을 많이 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안 해본 일들을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거칠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려면 매일 접하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찬찬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의 1,001가지 제안과 색다른 목록에서 바로 그 생각을 자극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1.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수에서 춤추기
2. 데뷔 소설을 쓴다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쓸 지 고민해보기.
3. 모래성 쌓기 대회에 출전해서 능력이 달는 선에서 가장 놀라운 작품 만들어보기.
4.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말 것. 그냥 덤벼보기
5. 아장아장 걷는 아기 옆에서 같이 걸어보기.
6. 친구와 2인용 자전거 타기
7. 일년 중 해가 가장 긴 날,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일출 보기
8.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밧줄을 매고 줄타기 연습하기.

(이하 생략)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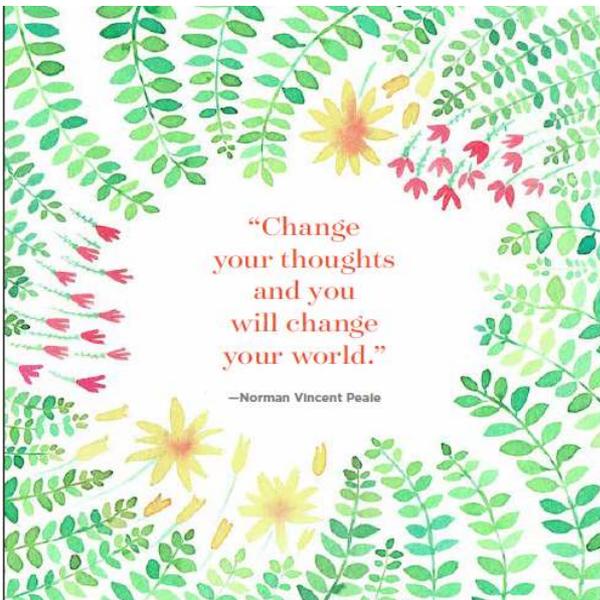
What does it mean to live wild? We might think of a lion lumbering gracefully across the Serengeti, its mane blowing in the wind. Or we might envision a sky-diver experiencing the thrill and exhilaration of flying when leaping from an airplane. What if we could experience such grace and beauty and excitement and freedom in our everyday lives?

This book offers 1,001 little ways to do just that—to turn each day into an adventure. You will discover a fun and heartfelt list of musings, things to do, inspirational quotes, and *wild* tidbits of knowledge. Each idea suggests a way to bring more passion, play, and courage into your life.

For me, writing this book came at a great time. My husband and I are adjusting to an empty nest while contemplating what to do with our later years. Our sons are adjusting to being out-of-nesters with no one to tell them what to do! This got me thinking about the many turning points in life: graduations, first jobs, big birthdays, relationship beginnings and endings, marriage, parenthood, retirement—and the list goes on. There are so many stages at which we rethink what we want out of life. I hope this book will help jump-start anyone who is approaching a new beginning or needs a jolt of “get out there and live.”

The entries in this book are serendipitously offered, so you can either read straight through or go wild(!) browsing them. Many ideas encourage travel, appreciation of nature, and trying new activities. But as you read, remember that a lot of “living wild” happens in your mind when you pay attention to the extraordinary beauty that surrounds us every day. At its heart, living wild is about experiences, not places. It is about living a freer, more joyful and fulfilling life.

7



44. Attempt to see things from as many angles as possible.



45. Starga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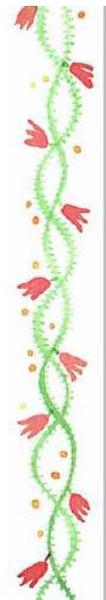


46. For a day, give a flower to every person you know.



47. If you want the rainbow, put up with the rain.

25



Wild List

Children's Activities to Do as an Adult

Tell a Joke
Keep a list of your favorite jokes. Break them out when someone needs a laugh.

Pet an Animal
Stop on the street to pet every dog and cat you see. Get down on the floor for some quality playtime with your house pet.

Arrange a Play Date
Get together with your kids, grandkids, nephews, nieces, or other young relatives with the sole purpose of playing together. Goofing around with kids helps you experience the joy of play from their perspective.

Go Out
Arrange nights out with work colleagues. Go bowling or miniature golfing, or sing karaoke.

Play in the Sand
Go to the beach and bring your buckets and shovels. Dig in as you did when you were five.

Hang Out With the Fun Kids
Surround yourself with playful people. They'll help loosen you up and are more likely to support and inspire your efforts to have fun.

Do Magic Tricks
Get a magic kit or take some lessons from a pro. Put on a show in your living room.

Run Around Outside
Throw balls. Push kids on swings. Make mud pies. Seesaw. See if you can still do the monkey bars.

Play Rainy-Day Games
Next time it's dreary outside, play cards or break out your old board games. Do anything nonelectronic.

Undertake a Craft Project
Dive into a craft project. Build a jigsaw puzzle. Bake cookies. Paint a pi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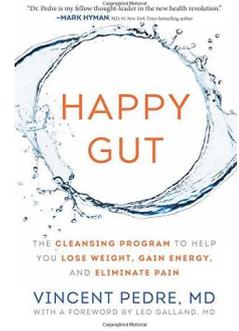
Sing
Listen to music and sing out loud. Play and improvise if you have time. If not, go back to your old guitar.

EYA Schools and Games

<저자 소개>

바바라 앤 키퍼(Barbara Ann Kipfer)는 50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한 작가로, 2014년 출간 25년을 맞이한 『14,000 Things to Be Happy About』은 현재까지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제목 : HAPPY GUT
가제 : 위장의 행복
저자 : Vincent Pedre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5년 12월 2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건강



페드르 박사가 제안하는 C.A.R.E 프로그램은 섭식, 해독, 치료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에이미 마이어스 박사 (New York Times 베스트 셀러 ‘The Autoimmune Solution’의 저자)

체중은 줄이고, 신체 에너지는 높이고, 통증은 없애는 기능의학 방식의 위 건강 개선 프로그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병명이 별로 낫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흔히 접하는 질병이 되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진단하는 질병으로도 꼽히며, 전 세계 인구의 7-10 퍼센트가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진단 받지 못한 채 복부 통증과 팽창, 속에 가스가 차는 증상 등에 수시로 시달리면서도 해결 방안을 몰라 괴로워하고 있다. 병명을 알아낸 환자들은 약 없이 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화계와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 전에 수년 동안 직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으면서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저자가 직접 개발한 ‘위장 케어(C.A.R.E)’ 프로그램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 통합 의학과 기능 의학을 모두 접목하여 위 건강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깨끗하게(Cleanse), 활발하게(Activate), 되살아나게(Restore), 튼튼하게(Enhance), 총 네 단계로 구성된 ‘위장 케어’ 프로그램에서는 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물을 없애고 위에 남아 있는 해로운 병원균도 모두 내보낸 후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와 영양소로 그 자리를 채워서 병들었던 위를 낫게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약으로 억누르는 일시적인 방법 대신, 위·장관 전체의 핵심 기능을 되살려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체의학의 일종인 기능의학은 의학계에서 새로이 주목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주변 환경과 환자의 위 장, 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저자와 같은 기능의학 전문가들은 환자 각각에 맞는 치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신체의 기능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을 개선시키는 이 같은 독특한 접근 방식은 환자가 겪는 증상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한다. 저자는 뉴욕의 개인 병원에서 실

제로 적용해보고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위장 케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위 건강이 개선되면 피부 발진과 편두통, 피로감, 섬유근육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위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면 불필요하게 쌓인 체중이 줄고 신체 에너지는 증대되며 계절마다 괴롭히는 알레르거나 몸 곳곳에서 떨어지지 않던 만성 통증도 개선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28일짜리 ‘행복한 위 만들기’ 다이어트 법을 따르면 염증 반응과 체중 증가를 일으키기로 악명 높은 식품들이 모두 배제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가 한결 편안해지고, 소화는 촉진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와 통증 완화라는 성과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와 함께 글루텐 프리 식단, 저지방 식단, 채식주의 식단 등 다양한 형태의 식단이 함께 제공되며 유익한 요가 자세도 배울 수 있는 알찬 건강서다.

<목차>

1부. 모든 것은 위에 달렸다

1장. 모든 것은 당신의 위에 달려 있다

2장. 행복한 위 만들기 다이어트: 1단계 / 장보기 목록

2부. ‘위장 케어’ 프로그램: 28일 후 새로워진 나

3장. 위장 케어 프로그램으로 증상은 없애고 건강은 유지하라 / 행복한 위 만들기 다이어트

4장. 성공 비결: 위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 식단

3부. 재도입기, 추가 검사

5장. 재도입기, 위장 케어 프로그램 평생 실천 전략

6장. 위장 관련 증상에 관한 추가 검사

4부. 위가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다

7장. 정서적인 위장: 마음과 위의 연결성

8장. 물리적인 위장: 몸과 위의 연결성

5부. 신나는 요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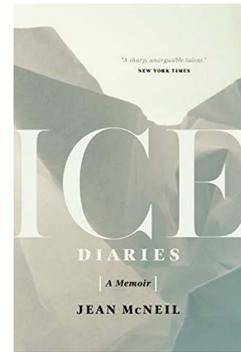
9장. 위가 좋아하는 레시피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빈센트 페드레(Vincent Pedre)는 내과 전문의이자 ‘페드레 통합건강(Pedre Integrative Health)’의 의학 책임자로, 기능의학 전문가 인증을 받고 뉴욕의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통합의학적인 방식으로 치료해 왔다.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의 임상교수로도 재직 중이며, 요가, 의료용 침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제목 : ICE DIARIES
가제 : 얼음 일기
저자 : Jean McNeill
출판사: ECW Press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분량 : 4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해가는 거대한 얼음 세상에서 보낸 시간의 기록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소설 작가였던 저자는 영국 남극조사단과 1년 동안 함께 일하며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대륙인 남극에서 4개월 동안 생활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느 국가에도 소유되지 않은 땅, 남극에 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한 적 없었지만, 결국 저자는 대망의 첫 발을 디뎠다. 짧지만 강렬했던 4개월 간의 경험을 통해 얼음 세상에 매혹된 저자는 이후 그린란드, 스발바르 제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클랜드 제도와 그 사이를 오가는 배 위에서 다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남극조사단의 한 직원이 남긴 “남극에서 한동안 살고 나면 다른 곳은 떠오르지도 않는다.”라는 말처럼, 저자도 남극의 신비한 매력에 푹 빠진 것이었다. 남극 탐험가 로버트 펠컨 스콧, 어니스트 샬턴의 정신을 잇는 마음으로 저자가 지나온 여정을 되짚은 이 회고록은 여행 일기이자 대중 과학서이며, 거대한 얼음에 매혹된 인류의 역사를 밝힌 기록이다.

얼음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 빙하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오면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그 빙산이 녹아서 사라지면 ‘죽었다’고 표현한다. 동시에 얼음은 불멸의 존재이기도 해서 녹으면 물이 되고 다시 증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 부활하며 절대 완전히 죽지 않는다. 저자는 얼음 세상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 세상의 너무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얼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친근한 시선으로, 또 저자 개인의 역사와 주관을 담아 바라보면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남극 대륙은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얼음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땅에 해당한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속에는 지구 전체의 과거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얼음 속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분석하면 머나먼 옛날의 기온이 어땠는지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온난해지거나 강렬한 추위가 몰려 왔을 때 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남극에서 지내는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후의 주기와 기체 분출이 지구의 향후 온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한다. 그러나 기나긴 지구 역사상 최초로, 남극 빙하의 자연적인 생애 주기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저자는 맨 처음 수 개월 동안 머물렀던 남극에서 대륙 전체가 매년 섭씨 2.5도 기온이 증가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다. 남극에 상주하는 몇 안 되는 비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저

자는 현대판 극지 탐험가와 많이 닮은 수많은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두가 경외하는 남극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젖어, 얼음의 땅이 선사하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때 한 점 묻지 않은 순수한 야생성을 온 몸으로 체험한 기록을 남겼다. 이 책은 그가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을 객관적으로 옮긴 진술서이자 여행 일기이고, 생명체의 삶에 나타나는 열역학적 특성을 고찰한 책인 동시에 바다 위에서 성장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개인적 삶의 발자취이기도 하다.

아름다움과 두려움, 상실과 방치, 변화와 승리 그 경계를 오가는 ‘관계’에 관한 흡입력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다.

<목차>

시작하면서

1부. 밤이 모두 소진된 곳

2부. 평균 태양일

3부. 겨울나기

에필로그

<저자 소개>

장 맥닐(Jean McNeil)은 장편 소설, 단편 소설 모음집 등 10권의 책을 발표한 작가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산문 쓰기 박사과정 공동 책임자를 맡고 있다. 단편 소설로 ‘프리즘 인터네셔널 상(Prism International prize)’를 수상했다.

제목: CRIMINAL

가제: 범죄자들

저자: Tom Gash

출판사: Allen Lane

발행일: 2016년 5월 5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사회



사람은 왜 나쁜 짓을 저지를까? 범죄 행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범죄의 숨겨진 진실

역사 전반을 거쳐오면서 인류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점들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범죄 행동을 대하는 사고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범죄를 도덕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으로, 모든 사람은 영웅이나 범죄자로 대략적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범죄자에 속한 자들을 교화하는 방법은 오직 처벌뿐이라고 본다. 이 경우 범죄 행동은 이기적인 선택이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를 무시하거나 일탈하고픈 욕구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어긴 결과로 여겨진다. 범죄를 해석하는 두 번째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와 생존자 둘 중 하나이며, 범죄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발생한 결과물이므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면 범죄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즉 범죄는 주어진 선택권이 별로 없는 큰 시스템 때문에 생긴 문제이므로 사회 개혁만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머나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 두 가지 시각은 현대 사회에서도 범죄를 보는 시각과 범죄에 대한 반응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 국가의 중대한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저자는 알고 보면 서로 연관된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는 바람에 범죄의 다른 속성들을 다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탄생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 책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범죄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과 치우친 견해들을 모아 그 역사적 뿌리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해 독일, 폴란드, 남미, 덴마크, 영국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다.

조직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악한 행동이며 점점 발전하고 있다?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징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결정한다? 이민자가 많은 곳은 범죄 발생률이 높다? 처벌 수위가 높아야 범죄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표범 몸에 난 점이 바뀌지 않듯, 타고난 성향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가난은 범죄를 부추긴다? 저자는 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들과 다양한 범죄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처럼 널리 알려진 오해를 하나하나 내걸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떤 관점으로 범죄와 범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근원, 지난 세기 동안 큰 폭으로 변화한 범죄의 흐름, 각국 정부가 마련한 범죄 퇴치 전략의 효과와 다양한 전략의 성패를 통해 밝혀진 범죄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는 훨씬 더 쉽게 줄일 수 있고, 범죄자를 교도소에 오랜 시간 가둬놓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범죄는 위험하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축소시킬 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소설 속 세계

오해 1: 범죄는 계속 증가한다

오해 2: 범죄자는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오해 3: 범죄자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

오해 4: 조직 범죄는 규모가 거대하고 사악하며 계속 발전한다

오해 5: 생물학적 특성이 범죄 가능성을 결정한다

오해 6: 가난이 범죄의 진짜 원인이다

오해 7: 이민자가 늘어나면 범죄 발생률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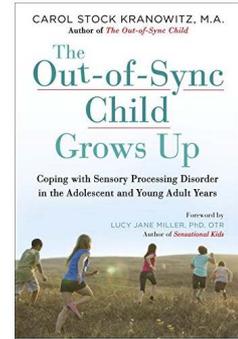
오해 8: 순찰 경찰이 더 많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톰 개쉬(Tom Gash)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근대사를 공부하고 현재 영국 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영국 총리가 조직한 '전략회의'에 범죄정책 자문관으로 참여했다. 공공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글을 <인디펜던트>,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기고해 왔으며 TV, 라디오 등에도 출연했다.

제목 : THE OUT-OF-SYNC CHILD GROWS UP
가제 : 손발이 안 맞는 아이들 - 성장기 편
저자 : Carol Stock Kranowitz
출판사: TarcherPerigee
발행일: 2016년 5월 24일(개정판)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육아/교육



‘감각처리장애’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팁

아동 발달 과정에서 ‘감각처리장애’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를 겪는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각 기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다. 감각처리장애는 둘러보면 바로 옆집 사람, 사무실 동료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도 부모나 의사가 알아채지 못한 아이들을 집어내는 등 이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감각처리장애를 안고 성장하는 아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부모, 교사, 의료 전문가, 치료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처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별탈 없이 즐겁게 보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감각처리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맨 처음 자신의 문제를 접했을 때 떠오른 생각과 기분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장이자, 바로 곁에서 이들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들이 생생하게 담긴 기록지이다. 저자는 감각처리장애에 생소한 사람들도 주변에 이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안내하면서, 감각처리장애 문제를 겪는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 생활에서 감각 기능 문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감각처리장애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표이다.

시력, 청력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하나라도 온전하게 기능하지 않는다면, 학교를 오가고, 공부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등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외상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도 아이가 토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숙한 어린 아이가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기분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병원에서 감각처리장애 진단을 정식으로 받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감각 기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삶은 물론 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정서적 고민 등 감각처리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언을 듬뿍 제공한다. 사회 생활,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데이트,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감

각각치리장애로 괴로워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제대로 돕는 방법 등을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다. “모든 행동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을 슬로건으로 삼아, 감각처리장애를 앓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는지 보여줌으로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맞추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짜배기 지침서다.

<목차>

1부. 감각처리장애 집중 분석

- 1장. ‘손발이 안 맞는’ 청소년들
- 2장. 기본 지식: 정상적인 발달과 감각처리장애 아동의 발달
- 3장. 맞서기, 희망 갖기

2부. 일상 생활 대처법

- 4장. 평상시에 몸단장을 할 때
- 5장. 편한 옷을 입어라
- 6장. 집에서 밥 먹을 때, 외식할 때
- 7장.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면
- 8장. 잠들기

3부. 대인관계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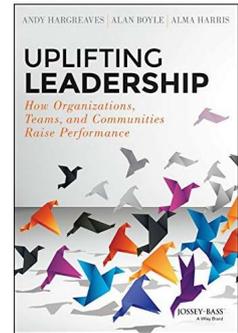
- 9장. 감각처리장애를 안고 사는 법, 가족 생활
- 10장. 친구 사귀기
- 11장. 데이트, 키스, 기타 등등
- 4장. ‘손발이 척척 맞게’ 사는 법
- 12장. 감각처리장애 치료
- 13장. 열정을 키워라
- 14장. 감각처리장애와 함께 성인이 된 아이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캐롤 스톡 크라노위츠(Carol Stock Kranowitz)는 『The Out-of-Sync Child』와 『The Out-of-Sync Child Has Fun』의 공저자로, 해당 저서들은 브라질, 스페인, 중동 지역, 일본 등 출판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를 돌며 감각처리장애에 관한 강연을 열고 있다.

제목 : UPLIFTING LEADERSHIP
가제 : 리더십의 양력을 키워라
저자 : Andy Hargreaves, Alan Boyle, Alma Harris
출판사: Jossey-Bass
발행일: 2014년 6월 23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이 경이로운 책은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관습적인 추측들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한다. —켄 로빈슨 경 ('The Element and Out of Our Mind'의 저자)

갖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른 개인과 회사들의 공통분모, '양력'을 키우는 법

적자 상태로 무려 17분기를 버텨서 화제가 된 초대형 다국적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국토 면적이 굉장히 작은 개발도상국이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세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팀들과 비교할 때 선택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후보들 가운데 추리고 추린 선수들로 꾸린 스포츠 팀이 그 외 다른 지원도 형편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 맨 땅에 헤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이미 정해진 줄만 알았던 실패의 길 대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면? 리더십 전문가 세 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비즈니스, 스포츠, 공공 교육 분야의 15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유리한 요소는 거의 없고 심지어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던 난국을 헤치고 극적인 성과를 얻거나 승리를 쟁취한 회사와 단체에 소속된 수백 명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외 비슷한 사례를 조사한 수천 페이지의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찾아낸 공통분모를 세 연구자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바로 '양력'이다. 거대한 새들, 건물 여러 채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비행기도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붕 뜰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인 양력은 사람과 여러 사람이 모인 그룹, 지역 사회 전체에 적용하면 개개인과 단체의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성과를 이루게 만드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명의 연구자는 이 책에서 기나긴 분석과 연구를 통해 파악한 성공의 비결인 이 '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이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부족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룩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두는 핵심 비결인 양력의 효과를 리더가 모든 직원들에게 불어 넣을 수 있다면, 개 개인의 열정과 지적인 능력, 업무에 헌신하려는 수준이 한꺼번에 향상되면서 경제적인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세 저자가 분석한 전 세계 다양한 회사와 단체의 리더들이 실제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였고, 그 과정을 분석하면 최악의 조건을 이겨낸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장기적인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되 그 속에 회사가 과거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이 목표를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거나 과도하게 빚을 지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폭발하게끔 내몰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추구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도 회사의 혁신과 개선에 필요한 것이라면 채택하고, 일이 진전되는 상황은 구체적인 측정치와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들이 억지로 부추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된 방식에 적응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슈바이닷컴(Shoebuy.com), 마크 앤 스펜서(Marks & Spencer), 호주 크리켓 선수 팀,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찾아낸 이 같은 특성이 상세히 제시되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업무 동기와 열정을 키우고,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 방식을 버리도록 만들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 회복력을 유지하고 싶은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양력

1. 꿈과 결단력을 동시에 가져라
2. 창의성과 역류
3. 경쟁심이 가미된 협력
4. 밀고 당기기
5. 의미 있는 결과를 측정하라
6. 지속적인 성공
7. 양력을 붙여넣는 조치

부록: 연구 방법

<저자 소개>

앤디 하그레이브(Andy Hargreaves)는 2012년 미국 공공교육 정책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12인 중 한 명에 포함된 인물로, 현재 보스턴 칼리지에서 교육학과 학장을 맡고 있다. 『Sustainable Leadership』, 『Professional Capital』 등 리더십과 변화에 관한 책을 25권 이상 쓰거나 편집했다.

앨런 보일(Alan Boyle)은 리더십 컨설턴트로, ‘리안타 교육협회(Leannta Education Associates)’를 설립하고 14년째 운영 중이다. 공저자로 『Big-City School Reforms: Lessons from New York, Toronto and London』를 썼다.

앨마 해리스(Alma Harris)는 말레이시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내 ‘교육 리더십 연구소’ 책임자를 맡고 있다. 런던 대학교의 ‘교육연구소’에서도 리더십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다. 주

로 학교 개선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 왔으며, 2008년에 발표한 저서 『Distributed Leadership in Schools』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됐다.